‘황우석’상표, 주인은 누구?

특허청,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대해 ‘著名性’인정하기로

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로세계를 놀라게한 황우석교수의이름을 다른사람이특허청에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출원한사실이알려지면서 ‘황우석’상표에대한권리자는과연누가될 것인가? 하는의문이제기되는가운데특허청은황우석교수의이름에저명성을인정하여다른사람이‘황우석’으로출원하는 상표에대해서는그등록을거절하기로내부적인심사방향을정했다.

상표의저명성은상표권자가아닌다른사람의상표등록을저지할정도로일반사람들에게널리알려져있는경우를말하는데매우 제한적이고예외적인경우에인정된다.

따라서최소한국내에서는황우석교수 본인이외의다른사람이‘황우석’상표를 등록받아그권리자가될수있는가능성은 없어졌다고볼수있다.

특허청은국내의한개인이‘황우석연구소’와“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포함한다양한서비스업에사용하고자상표등록출원을한 사실이있음을확인했다.

올해1월에출원된것으로알려진이 상표가등록되는경우등록권자는이들명칭에 대한상표권을갖게되어‘황우석연구소’란간판을걸고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등과같은경제활동을할수있게된다.

황우석교수의입장에서본다면본인의 이름에대한상표권을다른사람이갖게되는것이므로상표권을둘러싼분쟁의소지가있게되며, 향후‘황우석’상표를활용한경제활동도일정부분제약을받을수밖에없는상황이될것이다.

특허청은이번에출원된‘황우석’상표에대해등록을허용할것인가에대해내부적으로검토한결과, 황우석교수가특히 지난해부터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의선두주자로세계의주목을받고있으며, 그간 국내·외언론에도아주빈번하게보도된 결과대한민국국민의대다수가그의이름과 업적에대해알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황우석교수의이름이‘저명한타인의 성명’에해당하는것으로보아상표심사단계에서부터이를보호해주기로입장을 정했다.

특허청의이와같은입장정립은앞으로 ‘황우석상표’가다른사람에의해등록될 수없도록함으로써세계적으로널리알려진황우석교수개인의인격권을보호하고 ‘황우석상표’가다른사람에의해등록되어사용되는경우일반소비자들이그상품 또는서비스의출처가황우석교수와관련이있는것으로오인혼동하게되는사례를 원천적으로방지하며, 황우석교수의명성에편승하여경제적이득을챙기려는여러 의도를사전에차단하는등의효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연예인 이름에도 상표바람 분다

연예인 이름 상표출원 크게 늘어

최근 드라마제목등의상표출원급증 추세에힘입어유명연예인들의이름에대한브랜드화에도관심이높아지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허청의인기검색순위50위까지의유명연예인의 이름에대한출원현황분석에따르면, 2005년4월말현재총166건이 출원되었는데이중2003년까지68건에불과하던것이2004년부터2005년4월말까지 1년 4개월사이에98건이출원되어유명연예인의이름에대한출원이최근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분야별로는가수86건, 탤런트46건, 개그맨34건 순으로가수이름의출원이가장많았으며, 개인별로는가수는동방신기35건, 테이30건, 보아12건, 개그맨은리마리오17건, 이경규8건, 탤런트는하리수18건, 욘사마12건 순으로출원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출원상품별로가수는음악공연업, 테잎, MP3 등음악관련상품에개그맨은음식 및 건강관련상품에탤런트는화장품, 패션및악세사리관련상품에주로출원한 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연예인이름의상표등록출원증가추세는연예인소속사등의스타이름브랜드화전략과스타의인기도에따른광고효과등으로, 스타이름이곧돈이라는등식이 성립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연예인본인이자신의이름(성명, 명칭, 예명포함)을브랜드화하기위해서는특정인으로지칭될수있는고유성있는명칭으로작명하거나그렇지못한경우는유명해지기전에상표로출원하여선점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비, 바다, 쥬얼리, 유리등은특정인을지칭하는명칭으로볼수없음→상표에해당

일반인의경우유명연예인이름을상표로등록받기위해서는유명연예인의사용승낙을얻어야가능하다.

제공 특허청